

사상최대 IT무역흑자

4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34.1% 증가한 126.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반도체(41.8억 달러, 97.7%)와 디스플레이패널(28.4억 달러, 40.4%)은 對 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달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하며 IT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휴대폰(17.5억 달러, △28.2%)은 수출 단가 하락과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은 감소했으나, 보급형 폴더폰 판매 호조로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잠정)은 32%로 확대되었다.('09년 휴대폰 세계 시장 점유율: 30.2%)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10.3월 40.4억 달러를 한 달만에 재경신하였고, 패널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10.3월 28.4억 달러를 한 달만에 재경신하였다.

또한, IT 무역 수지는 67.1억 달러 흑자로 지난 '09.10월 이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산업 무역 수지 흑자에 기여하였다. ('09.10월: 63.6억 달러 흑자)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4월	1~4월	4월	1~4월	
수출	전체 산업	398.8 (31.5)	1,412.3 (34.8)	303.3 (△19.9)	1,047.5 (△23.7)
	IT 산업	126.7 (34.1)	471.3 (43.6)	94.5 (△19.6)	328.3 (△27.4)
수입	전체 산업	354.7 (42.6)	1,335.5 (38.7)	248.7 (△35.0)	962.9 (△33.3)
	IT 산업	59.6 (17.0)	229.0 (28.6)	51.0 (△25.0)	178.1 (△31.0)
무역수지	전체 산업	44.1	76.8	54.5	84.6
	IT 산업	67.1	242.2	43.6	150.2

국가별로는 미국(14.7억 달러, 3.2%), 일본(6.0억 달러, 7.8%) 등의 선진 시장과 중국(홍콩포함, 57.5억 달러, 57.7%), ASEAN(11.5억 달러, 49.8%), 중남미(7.6억 달러, 22.3%), 중동(3.3억 달러, 33.4%) 등 개도국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對EU(15.5억 달러, 10.4%) 수출도 유럽 화산재 항공대란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 갔다.

【 '10년 4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41.8 (97.7)	28.4 (40.4)	17.5 (△28.2)	126.7 (34.1)
중국(홍콩포함)	22.5 (136.6)	17.5 (59.8)	4.7 (△32.0)	57.5 (57.7)
미국	3.3 (131.5)	1.1 (119.7)	5.4 (△34.6)	14.7 (3.2)
일본	2.6 (△12.5)	0.6 (17.0)	0.4 (△15.6)	6.0 (7.8)
EU	3.1 (131.4)	4.4 (6.3)	2.9 (△38.6)	15.5 (10.4)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35.9억 달러, 15.4%), 컴퓨터 및 주변기기(7.4억 달러, 16.7%)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7.0% 증가한 59.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윈도우 7효과, 스마트폰, Tablet PC 등 IT 제품 출시 확대, 월드컵특수, 북미 Back to school 수요 등으로 당분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꾸준한 수요 확대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휴대폰은 중국 등 신흥 시장 공략 강화와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환율 하락,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 41.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97.7%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호조로 8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며 한 달만에 최대치를 재경신('10.3월 40.4억 달러) 하였다.

D램은 기업용 PC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와 제품 수요처 확대(스마트폰, Tablet PC, 서버용 등)로 전년 동월대비 201.3% 증가한 16.0억 달러이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태블릿 PC 등의 견조한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77.9% 증가한 2.5억 달러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2.5억 달러, 136.6%)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국(3.3억 달러, 131.5%), EU(3.1억 달러, 131.4%)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반도체	21.1	24.0	25.1	27.0	28.8	32.1	34.3	35.0	34.4	33.1	33.5	40.4	41.8
	(Δ26.2)	(Δ22.1)	(Δ23.0)	(Δ15.6)	(Δ7.2)	(9.2)	(36.4)	(80.1)	(125.5)	(121.1)	(117.9)	(123.1)	(97.7)
메모리	9.8	11.5	12.4	13.3	14.7	16.0	17.8	19.4	20.0	19.7	19.3	22.8	24.6
	(Δ37.6)	(Δ32.8)	(Δ28.9)	(Δ23.3)	(Δ12.7)	(10.5)	(56.0)	(114.1)	(174.8)	(172.8)	(144.6)	(163.9)	(150.1)
D램	5.3	6.3	6.9	8.1	8.7	9.3	10.5	12.4	13.8	13.8	13.0	15.1	16.0
	(Δ37.4)	(Δ34.0)	(Δ33.5)	(Δ25.0)	(Δ20.6)	(9.6)	(69.1)	(141.1)	(186.4)	(215.1)	(195.9)	(204.1)	(201.3)
반도체	1.4	1.7	1.6	1.6	2.0	2.1	2.4	2.0	1.8	2.1	2.1	2.4	2.5
	(Δ37.6)	(Δ30.6)	(Δ31.9)	(Δ31.5)	(Δ2.4)	(24.5)	(86.1)	(78.0)	(132.4)	(110.0)	(92.5)	(81.9)	(77.9)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8.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0.4% 증가

패널 수출(28억 4,160만 달러)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10.3월 28억 4,150만 달러를 한 달만에 재경신하였다.

패널은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 효과, IT 제품용 패널 수요 증가와 국내 업체의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한 것이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09.10)348 → (11)340 → (12)340 → ('10.1)340 → (2)340 → (3)340 → (4)335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59.8%), 브라질(134.4%) 등 주요 생산거점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금액	20.2	21.1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4.7	23.3	28.4	28.4
(증감률)	(Δ8.6)	(Δ7.1)	(4.0)	(5.1)	(7.8)	(4.1)	(10.3)	(34.9)	(113.7)	(99.7)	(55.8)	(46.3)	(40.4)

휴대폰(부분품 포함) : 17.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8.2% 감소

휴대폰 수출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휴대폰 수출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이다.

휴대폰 Top 5업체 간, Top 5업체와 스마트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전반의 가격 하락이 심화되었다. '10.1분기 RIM(1,060만 대)은 모토롤라(850만 대)를 앞질러 스마트폰 업체로는 처음으로 휴대폰 Top5업체에 진입하였다.

국내업체는 휴대폰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거점 확충 및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 수출은 감소세이다. 점차 휴대폰의 원가 경쟁력이 시장점유율, 출하량 등 업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애플 등의 글로벌업체는 단말 생산의 95% 이상을 해외 및 외주 생산에 의존한다.

휴대폰 대비 스마트폰 수출 비중은 국내 업체의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전략적인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10. 1월 16%에서 4월 22%로 증가세이다.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라인업 대폭 강화가 예상되는 6월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휴대폰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미국(5.4억 달러, Δ34.6%), EU(2.9억 달러, Δ36.6%), 일본(0.4억 달러, Δ15.6%), 선진 시장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4.7억 달러, Δ32.0%), 중동(0.5억 달러, Δ5.3%), 아프리카(0.1억 달러, Δ17.4%)등 신흥 시장 수출도 감소하였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금액	24.4	24.9	25.1	26.2	22.8	25.1	25.8	24.6	18.4	21.2	18.7	20.4	17.5
(증감률)	(Δ18.4)	(Δ11.1)	(Δ7.4)	(Δ11.4)	(Δ18.0)	(Δ22.6)	(Δ31.3)	(2.7)	(12.8)	(Δ3.4)	(Δ20.9)	(Δ14.8)	(Δ28.2)

주요 휴대폰 업체의 '10.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사상최대인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의 Mid-end 플러치폰 판매 호조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

내업체의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3.6%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32%에 이를 전망이다. 휴대폰 시장점유율(%),삼성+LG)은 ('09.1Q) 28.0 → (2Q) 30.1 → (3Q) 31.6 → (4Q) 30.5 → ('10.1Qp) 32이다.

칼라 TV(부분품 포함) : 6.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 확대되었다.

최근 TV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평판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6)25.0 → ('07)28.9 → ('08)33.8 → ('09)35.7이고, LCDTV가격(42인치, \$)은('09.10) 1,020 → (11) 1,040 → (12) 1,007 → ('10.1) 1,004 → (2) 957 → (3) 919 → (4) 1,046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123.2%), 멕시코(34.4%), 폴란드(26.7%), 헝가리(0.3%), 인도(94.8%) 등 주요 생산거점으로서의 수출은 증가세 유지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 57.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7.7% 증가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금액	36.5	37.5	41.4	46.1	46.8	51.3	51.4	50.3	51.5	52.4	46.7	57.6	57.5
(증감률)	(Δ16.7)	(Δ13.6)	(Δ4.8)	(0.7)	(3.8)	(11.2)	(14.4)	(49.7)	(122.2)	(111.0)	(56.3)	(69.6)	(57.7)
중국	29.0	29.4	32.4	36.1	36.5	40.4	39.8	38.9	41.2	42.0	36.5	45.8	38.7
(증감률)	(Δ16.9)	(Δ14.2)	(Δ5.2)	(2.3)	(4.7)	(13.9)	(14.6)	(54.4)	(132.8)	(124.5)	(55.2)	(67.5)	(33.3)
홍콩	7.4	8.1	9.0	10.0	10.2	10.9	11.6	11.4	10.3	10.4	10.2	11.8	9.2
(증감률)	(Δ16.0)	(Δ11.4)	(Δ3.3)	(Δ4.4)	(0.6)	(1.9)	(13.8)	(35.4)	(87.7)	(69.5)	(60.2)	(78.7)	(24.3)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22.5억 달러, 136.6%), 패널(17.5억 달러, 59.8%), TV부분품(0.8억 달러, 155.2%) 등 부분품 수출 호조로 10개월 연속 수

출 증가하였다.

휴대폰(4.7억 달러, Δ32.0%) 및 모니터(1.1억 달러, Δ13.9%) 수출은 감소하였다.

미국 : 14.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

반도체(3.3억 달러, 131.5%), 패널(1.1억 달러, 119.7%) 등 전자부품이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5.4억 달러, Δ34.6%)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모니터(0.3억 달러, 73.7%), TV(0.6억 달러, 189.6%), 셋탑박스(0.2억 달러, 0.5%) 등은 수출 증가세 유지하였다.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금액	14.3	14.5	14.0	14.5	13.0	13.3	13.6	13.6	12.3	12.1	13.2	14.3	14.7
(증감률)	(Δ15.1)	(1.7)	(Δ3.1)	(Δ8.5)	(Δ9.3)	(Δ15.9)	(Δ17.0)	(15.4)	(25.3)	(3.1)	(5.5)	(15.0)	(3.2)

EU : 15.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0.4% 증가

패널(4.4억 달러, 6.3%), 반도체(3.1억 달러, 131.4%), TV부분품(1.6억 달러, 36.5%) 등 IT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2.9억 달러, Δ36.6%)은 부진하였다.

일본 : 6.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7.8% 증가

패널(0.6억 달러, 17.0%), 모니터(0.1억 달러, 114.5%), TV(0.1억 달러, 56.7%), 셋탑박스(0.1억 달러, 52.4%) 등이 對일본 수출을 견인하였다. 휴대폰(0.4억 달러, Δ15.6%) 및 반도체(2.6억 달러, Δ12.5%)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